스위스 봄꽃 나들이.

스위스의 자연이 선사하는 봄 꽃 한아름

다시, 자연의 품으로
알프스와 과수원, 공원과 정원, 도시와 마을, 호반과 고성에서 만나는 봄꽃들
스위스 사람들도 좋아하는 동백꽃부터 알프스 가장 깊숙한 곳에 피어난 에델바이스까지
나르시스와 크로커스같은 이국적인 꽃들도 초원에 한 가득
쉴트호른과 체르마트에서 만나는 알프스 들꽃의 향연
호반따라 정성스레 조성해 놓은 꽃길도 낭만적
빙하특급, 베르니나 특급타고 알프스 속살에 수줍게 피어난 봄꽃 만나볼 수도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지난 해에 이어 '다시, 자연의 품으로'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스위스의 다채로운 여행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따사로운 햇살이 알프스에 쌓인 눈과 산골짜기 계곡의 살얼음을 녹이는 봄, 스위스의 도심과 산골마을에서는 한껏 물오른 꽃봉오리들이 기지개를 펴고 고운 빛을 펼쳐낸다. 화단이나 공원의 오색빛깔 꽃, 벚꽃과 사과꽃 등 과수원의 소박한 꽃, 가련한 들꽃, 산기슭이나 마을, 들판에서 때로는 수줍게, 때로는 힘차게 피어난 꽃들을 만날 수 있다. 호숫가 마을보다 한참이나 늦게 봄이 찾아오는 알프스 산 속 마을 목초지에서는 겨울내 1 미터도 넘게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민들레를 비롯한 알프스 야생화가 피어난다. 고도가 높아지면 크로커스나 겐티안, 에델바이스 등의 희귀한 꽃들이 고개를 내민다. 꽃이 가득한 길과 들판을 거니는 여행은 스위스를 보다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스위스의 곳곳을 거닐다가 이름을 아는 꽃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더없이 크다.

스위스의 봄꽃 풍경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알프스 산
해발고도 약 800m 의 들판에서 설산이 시작되는 4000m 의 높이까지 600 종류 이상의 꽃들이 피어나는 스위스 알프스는 봄부터 여러 가지 색의 꽃들로 넘쳐난다. 여행자들을 감동시키는 웅장한 풍경은 물론, 험한 암벽,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샘과 폭포, 빙하와 명봉, 삼림지와 알프스 목초지 등에서 수많은 종류의 꽃을 볼 수 있어 더욱 아름답다. 알프스를 대표하는 꽃과 희소성이 있는 꽃들이 동시에 피어나 옛부터 많은 식물학자들이 찾았던 산들 중 특히 아름다운 꽃 길 구간이 있다.

1) 쉴트호른(Schilthorn)
쉴트호른(Schilthorn)으로 오르는 케이블카가 있는 뮈렌(Mürren)에서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알멘드후벨(Allmendhubel)에서 이어지는 하이킹로를 이용해 뮈렌까지 내려오며 아름다운 봄꽃 들판을 감상해 보기 좋다. 알멘드후벨에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이 근처에서 꽃 길이 시작된다. 걸어서 약 30 분 정도가 소요되는 길로, 웅장한 알프스 봉우리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6 월부터 9 월까지 150 종류가 넘는 알프스 야생화가 피어나 그 절정에 달한다. 알펜로즈(Alpine Roses)와 에델바이스(Edelweiss)를 볼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이 때다.

2) 리기(Rigi)
루체른 근교의 리기(Rigi) 산은 무엇보다도 야생화로 유명하다. 리기 정상에서 리기 칼트바드(Rigi Kaltbad)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나, 리기 칼트바드에서 벡기스(Weggis)까지 이어지는 길에서 과남풀을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비롯하여 금매화 등 다양한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산 정상을 따라 하이킹로가 놓여 있어 편리하다. 걷다가 소떼를 만나기도 한다.

3) 티틀리스(Titlis)
루체른 근교의 산으로, 알프스 꽃구경을 떠나는 소풍을 즐기기 좋다. 티틀리스(Titlis) 산으로 향하는 케이블카가 있는 엥겔베르그(Engelberg)에서는 트뤱제(Trübsee) 호수까지, 혹은 호수 주변을 하이킹하며 다채로운 야생화를 즐길 수 있다.

4) 슈토오스(Stoos)
루체른 호수 지역에 있는 슈토오스 산에는 능선 코스인 플론알프슈톡 하이킹 코스가 있다. 스위스에서도 이 능선 코스는 아름답고 클래식한 파노라마 코스로 소문이 자자하다. 열 개가 넘는 호수의 풍경과 중앙 스위스의 셀 수 없는 알프스 봉우리가 눈 앞에 펼쳐진다. 풍경 곳곳에 피어난 소박한 야생화가 봄을 알린다. 리멘슈탈덴(Riemenstalden) 계곡과 우리(Uri) 호수의 파노라마도 이어진다. 슈토오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중앙 스위스의 알프스 파노라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5) 체르마트(Zermatt)
체르마트에는 블루멘베그(Blumenweg)라는 이름의 꽃길이 있다. 제주올레 6 코스와 '우정의 길'로 맺어진 '체르마트 5 개 호수길' 시작되는 블라우헤르드(Blauherd)에서 시작하여 투프테른(Tuftern)을 거쳐 수넥가(Sunnega)로 돌아오는 길로, 다채로운 꽃으로 가득하다. 다양한 알프스 들꽃과 그들의 특징을 보다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 더욱 알차다. 총 길이가 약 4.3km 에 달하며 난이도도 중간 정도로 적당하다. 체르마트 구시가지의 샬레 호텔들은 제라늄으로 발코니를 화려하게 장식해 두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2. 과수원
여린 핑크빛 꽃이 빼곡이 피어난 체리나무들이 만들어낸 벚꽃은 동심을 자극하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4 월부터 5 월 초순, 바젤(Basel)과 베른(Bern) 지역을 찾아보아야 한다. 스위스인들은 국민 한 명당 약 2kg 을 소비하는 만큼 체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관상용으로 발전한 벚꽃나무가 주류인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스위스는 체리 재배용의 나무가 대부분으로, 체리나무의 수를 국민 한 명당으로 환산하면 세계에서 최고를 차지할 만큼 약 500 품종의 체리나무가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체리 열매 그대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를 대표하는 술, '키르쉬(Kirsch)'의 원료이기도 하다. 바젤과 베른 주 등 스위스 북부 지역은 스위스 체리 생산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과수원을 따라 수많은 체리나무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바젤 근교의 아리스도르프(Arisdorf), 호트빌(Hottwil), 시사흐(Sissach)에서, 그리고 투르가우(Thurgau) 주의 보덴제 호숫가, 유라파크 아르가우(Jurapark Aargau) 자연 공원, 멘칭엔(Menzingen), 티터텐(Titterten)에사 아름다운 벚꽃과 사과꽃 풍경을 만날 수 있다.

3. 자연 공원
스위스에게 공원이란 '이례적으로 아름다운 지형을 갖춘 지역이나 지방으로, 다양한 동물과 식물 종의 천연 서식지가 되어주는 곳'이다. 스위스에서는 2007 년에 제정된 스위스 자연 및 문화재 보호법(NHG)에 근거해 공원을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국립공원(National Park), 지역 자연 공원(Regional Nature Park), 자연 발견

공원(Nature Discovery Park)이다. 각각의 카테고리 마다 엄격한 규정과 법규가 적용된다. 스위스에 있는 공원 대다수는 지역 자연 공원으로, 특별히 다른 가치를 지닌 문화적 지형에 의해 규정되는 공원이자, 독특한 특성을 지닌 마을들이 공원 내에 포함된다. 그래서 스위스의 자연 공원은 그 크기가 방대하다. 이런 공원이야말로 스위스의 꽃을 만나기 제격이다.

1) 빈탈 자연 공원(Naturpark Binntal)
빈탈 자연 공원은 빈(Binn), 에멘(Emen), 그렌지올스(Grangiols), 비스터(Bister), 블리칭엔(Blitzingen), 니더발트(Niederwald)를 품고 있는 방대한 공원이다. 발레(Valais) 주 최초로 인증 받은 자연 공원이다. “숨은 보물 계곡(The valley of hidden treasures)라는 별명답게 184 종의 다채로운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햇빛 찬란하게 내리쬐는 정겨운 마을의 지붕이 공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있다.습지와 건조한 초원지대, 깊은 숲, 알프스 목초지와 초록의 들판, 빙하 지대, 전나무 숲, 산정 호수, 암석 지대, 과거 농경지대, 알프스 들판에서 소박하고, 또 화려한 꽃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희귀 야생화로 유명한 공원이다. 특히 5 월 중순 이후에는 그렌지올스 튤립이 그렌지올스 근교 칼버바이드(Kalberweid) 언덕에 화려하게 피어난다. 전 세계 어디서도 피어나지 않는 희귀 튤립이다. 6 월이면 레이디 슬리퍼(lady slipper)라 불리는 개불알꽃이 탁트인 숲에 피어난다. 알프스 매발톱꽃(alpine aquilegia), 골든 프림로즈(golden primrose), 초롱꽃속(campanula excise), 겐티안(Schleicher’s gentian) 등 다양한 꽃도 만나볼 수 있다.

2) 취리히 질발트 공원(Naturpark Wildnispark Zuerich-Sihlwlad)
취리히 최초의 자연 체험 공원으로 야생 동물과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공원이다. 또한 스위스 북부의 최대의 숲으로, 숲 속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숲과 벌판, 동물이 어우러져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질발트 숲은 2009 년 스위스 연방에 의해 공식적으로 “자연 발견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원시상태의 숲에는 빼곡히 나무가 들어서 있어 취리히 시민들에게 수 세기 동안 장작과 목재를 공급하던 곳이기도 했다. 150 년 전에는 목재를 수송하기 위해 숲 속에 철로가 놓이기도 했을 정도다. 2000 년부터 이 숲의 개발이 금지 되었다. 지금은 산책을 즐기면서 오래된 거대 나무와 고목을 따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봄이 되면 다채로운 야생화가 수줍게 피어나며 구석구석에서 꽃을 찾는 재미를 선사한다. 다양한 걷기 여행로도 만들어져 있어, 생태 체험 걷기 여행에 적격이다.

4. 도시와 마을
1) 취리히
바쁜 여행자라면 취리히 호숫가를 찾아보자. 취리히의 호숫가 산책로에 있는 정원은 다채로운 꽃밭으로 가꾸어져 있다. 느리게 걷기가 취리히의 새로운 패션으로 자리잡은 1800 년대에 만들어진 호반 산책로로, 오랜 시간 동안 취리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원이다. 특히 호반 산책로 중앙에 위치한 뷔르클리플라츠(Bürkliplatz) 광장의 전망 테라스에서 화려한 빛깔의 꽃길 산책을 시작해 엥에(Enge)까지 호반을 따라 걸어 보아도 좋다.

2) 베른(Bern)
베른의 로젠가르텐(Rosengarten) 공원은 빼놓아서는 안될 명소다. 언덕 위에 자리해 있어 베른과 아레(Aare) 강의 파노라마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데다, 장미로 조성된 공원에는 220 종의 장미와 200 종의 아이리스, 28 종의 철쭉이 피어난다. 1765 년부터 1877 년까지 마을 묘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으며, 1913 년 아름다운 꽃과 연못이 있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로젠가르텐을 오르는 길에는 일본에서 선물받은 벚꽃나무길이 있어 아름다운 봄풍경을 선사하기도 한다.

3) 보덴제(Bodensee) 주변 마을
생갈렌(St. Gallen)이 있는 보덴제(Bodensee) 지역에서도 샛노란 풍경을 즐길 수 있는데, 보덴제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들인 뷜러(Buehler), 노이 생 요한(Neu St Johann), 로르샤흐(Rorschach), 트로겐(Trogen) 등지에서 노란 풍경을 만날 수 있다.

4) 생모리츠(St. Moritz)
그라우뷘덴(Graubünden) 주는 전형적인 알프스 봄 풍경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높은 고도에 있어 6 월 상순 정도에 해빙을 맞이하며 한꺼번에 꽃들이 피어나는데, 생모리츠(St. Moritz), 아로자(Arosa), 다보스(Davos), 실스-바셀지아(Sils-Baselgia), 실바플라나(Silvaplana) 등지에서 노란 들판을 만날 수 있다. 그 중, 생모리츠의 근교, 실스(Sils) 마을에 있는 발 펙스(Val Fex) 계곡에서는 정겨운 오두막 주변으로 피어난 샛노란 꽃 융단을 만나볼 수 있다.

5) 레만호 지역(Lake Léman Region)
청초한 백색의 수선화가 알프스 봉우리 아래 초록 들판을 새하얗게 뒤덮는 풍경을 목격하고 싶다면 '시인의 수선화'라고도 불리우는 나르시스(Narcissus) 꽃밭을 찾아보자. 기자 자격으로 몽트뢰 근교의 샹비(Chamby)에 있는 산장에 머물고 있던 헤밍웨이도 나르시스 꽃밭의 화려한 풍경을 1922 년 5 월에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잘 묘사하고 있다. 레만호의 몽트뢰(Montreux) 언덕 위 일대는 수선화의 한 종류인 나르시스 들판이 펼쳐진다. 4 월 말에서 5 월이면 새하얀 꽃이 한창 피어나, 마치 설원과 같아 보여 '5 월의 눈'이라고도 불린다. 우리에게 '소금을 뿌린 듯'한 봉평 메밀꽃밭이 있다면 스위스에는 '5 월의 눈'인 나르시스밭이 있는 셈이다. 나르시스는, 일반 수선화와 같이 재배하기 쉬운 원예종이 아니고, 미묘한 생태계를 가지는 섬세한 야생의 꽃이므로, 소나 인간이 비집고 들어가 구근을 밟아 망치면, 다음 해부터 완전히 피지 않게 되어 버린다. 그 때문에, 스위스의 환경 단체에 의해 보호 지정되어 있어 나르시스 들판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몽트뢰에서 골든패스 기차로 약 30 분 소요되는 레 자방 (Les Avants)에는 '나르시스 길' 하이킹 코스도 있다. 오-앵띠아몽(Haut-Intyamon), 레 쁠레야드(Les Pleiades)에서도 아름다운 나르시스 밭을 만날 수 있다.

6) 모르쥬(Morges)
로잔(Lausanne)에서 기차로 10 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모르쥬(Morges)는 매년 열리는 튤립축제로 유명한 곳이다. 매년 봄, 4 월부터 5 월 중순까지 날씨에 따라 축제 일정이 잡히게 된다. 기차역에서 레만호반으로 이어지는 길에 있는 전쟁박물관 뒤편으로 돌아가면 랭데팡덩스 공원(Parc de l'Indépendance)이라 불리는 튤립 공원이 나온다. 호반에 정박해둔 하얀 요트 무리가 더없이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십이만 송이의 튤립과 나르시스, 히아신스가 온 공원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흑자주색 튤립을 비롯한, 수줍은 소녀의 연분홍 튤립 등 독특한 색채와 모양의 튤립을 볼 수 있다. 튤립 축제에 이어 근처의 뷔이유렁 성(Château de Vullierens)의 정원에서는 아이리스와 수련이 한 가득 피어난다.

7) 티치노(Ticino) 주
티치노를 대표하는 동백꽃은 19 세기에 일본에서 서양으로 전파되어져 개량되고 색도 형태도 화려해지면서 더욱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었다. 스위스에서는 겨울이어도 온난한 이탈리아어권,

티치노(Ticino) 지방에서 잘 재배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로까르노(Locarno) 주변은 동백꽃으로 유명하다. 2005 년에는 로까르노의 호반에 동백꽃 공원이 오픈되기도 했으며, 매년 3 월말에는 동백꽃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로까르노 근교에 있는 감바로뇨 식물원(Parco Botanico del Gabarogno)에서는 약 950 종의 동백꽃을 구경할 수 있다. 티치노를 대표하는 동백꽃은 티치노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사랑을 받고 있어, 매년 3 월말에는 동백꽃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감바로뇨 식물원의 포장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동백과 목련, 철쭉, 피오니 등 화려한 꽃 잔치를 감상할 수 있다.

5. 정원

1) 생갈렌(St. Gallen)

스위스 동부에 자리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도원과 부속도서관으로 유명한 도시, 생갈렌에도 꽃향기가 가득한 곳이 있다. 바로, 자연 박물관, 나투르무제움(Naturmuseum)이다. 2000m2 에 자리한 이 자연 박물관에서 생갈렌의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 박물관답게 과학적, 문화적 역사 전시물은 물론, 공룡 화석도 전시되어 있어 생갈렌 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이 곳의 정원은 아름답기로 소문났는데, 다채로운 꽃과 나무에 둘러싸여 소풍 나온 기분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2) 로만틱 호텔 배렌 뒤렌로트(Romantik Hotel Bären Dürrenroth)

베른(Bern) 근교의 치즈 농가 마을, 에멘탈(Emmental) 지역에 자리한 호텔로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역사적인 레스토랑이자 호텔로 유명하다. 베른(Bern) 주의 에멘탈(Emmental) 지역, 뒤렌로트 마을에 자리한 베렌 호텔은 바로크 양식의 에멘탈 특유의 건물 세 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치는 스위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편안하고 낭만적으로 꾸며진 객실은 매력을 발산한다. 아름다운 조형과 다채로운 꽃과 식물로 꾸며진 정원은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다.

3) 카르타우세 이팅엔 바르트(Kartause Ittingen Warth)

과거 카르투지오(Carthusian) 수도원으로, 850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스위스 북동부의 보덴제(Bodensee) 지역에 자리한 바르트(Warth)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서는 가치를 무척 높이 평가하는 문화재다. 최근에는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사람들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레스토랑도 유명한데, 이 곳 정원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이용해 정성껏 만든 메뉴가 로컬들에게 인기다. 식사 후에는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을 거닐며 산책을 즐기기 좋다.

6. 고성

고성에서 만나는 꽃의 풍경도 특별하다. 취리히 근교의 빈터투어(Winterthur)에는 키부르그(Kyburg)라는 고성이 있다. 루돌프 폰 합스부르그(Rudolf von Habsburg)가 이 성의 타워에 올라 에센베르그(Eschenberg)부터 독일의 헤가우(Hegau) 화산까지 넓게 펼쳐지는 풍경과 취리히의 이르헬(Irchel), 위틀리베르그(Uetliberg)부터 베르네제 알프스(Bernese Alps)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를 감상했다고 전해진다. 키부르그 성 근처에 펼쳐지는 하이킹로를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꽃밭을 만날 수 있다.

7. 파노라마 기차

산 속이나 하이킹로에서 걸을 시간이나 체력이 되지 않는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널찍한 파노라마형 창문 너머로 끊임없이 변하는 꽃 풍경을 보여주는 파노라마 기차에 올라타면 된다. 파노라마 기차를 타고 꽃이 한창이 들판과 골짜기를 둘러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빙하특급(Glacier Express)와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을 타고 그라우뷘덴(Graubuenden) 주의 꽃 풍경과 알프스 가장 깊숙한 곳의 수줍은 꽃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